

12/10 라온아띠 양곤팀

전희다형
재현민준

무빙스쿨

Signpost

라온아띠 14기 양곤팀의 Moving School



나는 궁예다. 관심법이니라.

천안역에서 상큼하게 출발~~!!



중국인 관광객들인가?

1번 출구를 나가서



뭐시여 여기가
어디여?!



아따 봐도
모르겠다잉.

바로 길을 잃고 만다...



아놔, 안달네..

위험한 구조물을 지나



여긴 왜 경운기도 없는겨..

천안 상경한 시골 처녀들도 보이고



좀 더 헤매다 드디어 찾게 되었다.

저는 청소년들과
함께 라면..



앵클커피 대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힘든 점이 없나요?

청소년들을 위해 장소와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 자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이윤을 내기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윤을 내기 위해서 한다면, 이 일은 계속 할 수 없을 거예요. 교육을 받고 싶어도 개인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방해를 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저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었어요.



천안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0년대만 해도 동남부는 원도심으로 상권가치가 높았어요. 하지만, 서북구가 점차 발달되고, 상권이 옮겨가며, 급격하게 빈부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동남구는 거의 아무도 찾지 않아요.





나 아직 다 안 일어났는데
ㅠ.ㅠ

첫 방문을 아름답게 시작하며 한 컷!



사업이란게
뭔지 알아요?

먹는 거
아니에요??...

나 지도.



이번엔 오빠네 게스트하우스 대표님을 만났다.



오빠네 게스트 하우스가 사회적 기업인가요?



아니요. 사회적 기업은 지원 받기 위해서 또는 지원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원을 생각해서 한다면 지속 가능할 수가 없죠. 기업은 어쨌거나 자생할 수 있어야 해요. 오빠네 게스트하우스가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운동이 재미없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재미 속에는 진심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천안 분이 아니신데 왜 천안에서 하기로 하셨나요?



대학교가 많지만 천안 내에는 놀 거리가 없어요 대학생들은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또 천안은 우리나라 교통의 요충지에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광 사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천안은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바로 독립운동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충분히 활성화 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죠. 제 프로젝트로 동남구가 흥대처럼 활성화 되면 이곳은 스스로 클 수 있도록 남겨두고 저는 활성화시킬 또 다른 지역을 찾아서 떠날 거예요.



내가 바로 천안의 3000원
칼국수예요.

특별출연
열정적으로 길 가르쳐
주신 아저씨

너무 많은 정보에 머리가 아파 일단 배를
채우기로 하고 칼국수 집에 갔다.




우왕, 마시져!!!

두 그릇을 비웠다고 한다.




아, 관절에 무리가..

운동도 할 겸 자발적 불편,
우리는 계단으로!!

 폴뿌리희망재단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희망나눔가게

 cafe **MOMO**



모모는 친구란 뜻입니다.

지하도를 건너 10분 후, 카페 모모에 도착했다.

나 여기서 자고 갈래.



여기는 지역시민들을 위한 두 개의 큰 강의실과 침대도 있었다.



나, 서비스!!!

사장님께서 출현을 꺼려하셔서 허니 브레드로 대체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는데 왜 카페에서 일하시나요?



저보고 가서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웃음) 사회복지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복지는 일상이잖아요 사람 잘 살게 하는 게 복인데 사회복지에서는 너무 틀에 박힌 이야기만 하더라구요. 카페에서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사회와 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복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라온아띠 1기로서 저희 팀에게 조언 부탁 드려도 될까요?



모든 함께 움직이세요 넷이서 함께. 5개월 굉장히 짧은 시간 이에요 뭘 해보려고 할 때 돌아오죠. 무언가를 하려는 생각은 버리고 가서 주민들과 살고 온다는 생각으로 다녀오세요. 갈등도 많을 거고 문제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 느낀 것대로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믿고 '우리'를 믿으세요.



청년과 지역사회에 대해 생각하며 시간이 조금 남아
천안을 좀더 걸어보기로 했다.



저녁 먹을 시간 아니에요?
여기 먹을 거 많네.

번화가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사람들이 전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지나갔다.



그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세 청년과 주민들이 있기에 천안이라는 지역사회의 미래는 밝은 것 같다.

미안마팀 무빙스쿨

청년들에게 듣는 첫인상 이야기



30대 초반

항구커피

항구방 청년들과 함께하는 에피소드이다.
 첫인상: 항구방 청년들을 위한 볼거리가 아랑곳 없었고
 환경이나 개인사정으로 항구방을 방문하는 청년들은
 방문할까? 임의였어. 두터웠어. 낯아오.

인내에 게스트하우스

청년을 상대로 마태! 저의 취미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대표와 사업계획서작성!



32살

카페 모모

카페에서 ^{연락} 사랑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좋아요! :)
 거창한 것이 사회보자가 아니에요.
 작문기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
 라온아미 1기 (베트남)

방명	성별	연령대	회생한 일	특징
항구커피	남	30대 초반	청소 컨네(후) 관련 자영업 및 교육	강산면 사회보자가
인내에 게스트하우스	남	30대 초반	강릉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	상업적 문화 첫인상적 주민 X
카페 모모	여	20대 후반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	라온아미의 멘토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의 뜨거운 무빙스쿨 이야기!!

무빙스쿨을 마치며..



사실, 나는 지역사회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무빙스쿨을 계획하면서도 별 흥미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천안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며, 지역사회에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큰 주제가 '사회적 기업' 이긴 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 듣고 왔다.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활동은 그 삶의 그저 일부분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을을 위해 일하는 것 또한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빙스쿨을 출발하기 전 이전에 관심 있었던 '사회적 기업'이란 것에만 초점을 두고 왔지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을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 시작한 주제는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지역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주제보다 지역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천안으로 2년간 대학을 다녔음에도 나는 정말 몰랐다.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안에는 마을 이라는 작은 공동체와 사람들이 서로를 연결하는 끈이 있었다. 나도 내지역사회안에 어떤 사람으로 자리잡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었다.





양곤팀

무빙스쿨

끼웃~